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김수환 추기경이 코스모스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 추기경이 생전에 쓴 몇 편 안 되는 수필 가운데 '어머니, 내 어머니'라는 것이 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추기경의 심사가 담담하게 그려져 있는 이 글은 짧지만 읽는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어머니를 주제로 쓴 사모곡 가운데 나는 추기경의 이 글을 단연 으뜸으로 친다. 글은 이렇게 코스모스 이야기로 시작된다.

"어느 날 가을 들녘이 보고 싶어 시골에 내려갔다. 어느 수도원 손님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찢고 창문을 여니 하늘 아래 들 가득히 피어난 코스모스가 눈에 확 들어왔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그 모습이 얼마나 청초하고 아름다운지 옛 고향 집을 다시 찾은 것만 같았다. ... 어머니의 모습이 그 꽃밭에서 미소짓는 것만 같았다. 우리 어머니는 코스모스처럼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신 데다가 젊었을 때는 분명 그렇게 수려한 분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그리고는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이어

김수환 추기경과 코스모스

간다. 김수환 추기경은 8명의 형제자매 가운데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위의 형이나 누이들은 가난과 잦은 이사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오직 추기경과 바로 위 형남만이 그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추기경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생활과 교육 모두를 어머니가 도맡았다.

가녀린 꽃을 닮은 어머니

추기경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는 언젠가 대구에 다녀오셨다. 아마도 그때 대구의 큰 성당에서 사제 서품식을 보고 오신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형제 둘을 앉혀 놓고 '너희들은 신부가 돼라'고 하셨다. 이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곧 추기경과 그 형의 일생이 되었다. 형이 먼저 신학교로 간 뒤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산적도 있었다. 장사하러 가신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루에서 석양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날이 많았다. 추기경이 남달리 석양을 사랑하는 것은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교육에는 엄하였지만, 먹는 것 입는 것은 마치 부잣집 자식처럼 먹이고 입혀줬다. 형제는 부잣집 아들 같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형은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닮았고, 김수환 추기경은 고모들이 '너는 어쩌면 꼭 네 아버지를 닮았나'라고 할 만큼 아버지를 닮았다. 그렇지만 추기경은 어머니아발로 자식을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성직의 길로 가게 하신 분이러면서, 그런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풍수지탄(風樹之嘆)에 목이 매곤 했다.

추기경은 어머니가 코스모스처럼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신 데다가 젊었을 때는 분명 코스모스처럼 수려한 분이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 코스모스를 통하여 어머니를 그리고 있다. 어머니를 그리는 것은 비단 어머니가 코스모스를 닮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코스모스는 분명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하는 힘이 있다.

시인 조지훈(趙芝薰)은 코스모스를 '차운 계절을 제 스스로의 피로써 애달게 피어 있는 꽃'으로 그리면서 '향방 없는 그리움으로 발돋움하고 다시 활처럼 슬픈 모가지를 빼고 있다'고 읊었다. 코스모스의 큰 키는 영락없이 발돋움하고, 학처럼 슬픈 모가지를 뺀 모습이다. 이미가 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발돋움하고 또 모가지를 빼고 있는 것이다.

코스모스는 큰 키와 가냘픈 허리를 가진 탓으로 아주 가냘픈 바람결에도 쉽게 하늘거린다. 한 줄기 바람에도 저항하지 않고 그 바람결을 탄다.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결을 타면서 더불어 함께 일렁인다. 파도가 밀려가고 밀려오는 것처럼 더불어 함께 흔들리는 것이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량한 바람을 타고 무리 지어 하늘거리는 코스모스를

바라보노라면 내 비록 시인이 아니지만 물결 같은 그리움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코스모스는 확실히 밀려오는 그리움과 눈물겨운 기다림의 꽃이다.

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귀화 식물로 구한말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의 풍토와 기후에 알맞게 적응하여 이미 토착화된 꽃이다. 1784년, 서양 종교인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와 갖은 신산고초를 겪으면서 나라의 개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면서 토착화되는 과정과 궤적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이면서 로만칼라를 하고 있는 추기경의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분위기가 있다.

밀려오는 그리움의 파도

어디선가 코스모스를 다섯가지 덕(?)으로 예찬한 글을 본 적이 있다. 박토에서 자라는 검소함, 나실나실한 가냘픈 잎의 소박함, 요염하지 않은 청초함, 비바람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함, 칼칼한 가을 맑은 공기에 피는 기쁨이 코스모스의 다섯 가지 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스모스에는 저 홀로 피고 지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련한 그리움으로 이끌어 사람들의 둔탁해진 마음을 착하고 맑은 마음으로 순화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 가을 들녘, 길가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나로 하여금 문득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그리움에 젖게 한다.

청춘 특·특



김주엽 장성 백련동편백농원 셰프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산다. 농사를 짓고 수확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청년 시골 셰프'다.

어릴 땐 친구들과 뛰놀 수 있는 시골의 삶이 무척 즐거웠다. 그러나 나이를 조금씩 먹어갈수록 친구들은 이곳보다 도심으로 나가 놀길 좋아했고, 도시에서 직장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시골을 떠날까 재미없는 곳으로 여길까? 모두 도시로만 떠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던 적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기회가 많은, 문화 생활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은 게 도시다. 하나 조금만 다르게 보면 젊은이들이 모여 있고, 실력이 좋은 사람도 많으니 그만큼 또래간 경쟁이 심해 직장을 구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건 생각의 차이

나 역시 대학에서 요리를 배울 때도 "졸업하면 시골보다 서울 같은 도시에 나가 일을 배워라. 시골에서 해봤자 배울 게 별로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내 생각도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시골에서는 배울 게 별로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어릴 적 추억도 많고 즐겁게 놀던 시골을 왜 떠나려 하는지 말이다. 경쟁이 치열한 도시와 달리 시골은 무궁무진한 자원을 품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된 시골에서는 노동력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부족해 좋은 자원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팔팔한' 청년들의 노동력과 '젊은 생각'을 접목시킬 수만 있다면 도시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사는 것보다 시골의 삶이 한결 더 여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의 축적된 경험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청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충분했다. 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만나 "예전에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드셨나요?" "이 나물은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죠?" "배추를 심었는데 아직 속이 안찼어요.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라며 끊임 없이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직접 해보면 알 수 없었을 '경험의 결과'

를 쉽게 전수받을 수 있었다.

시골은 도시보다 배울 게 없다면 어른들의 말을 들었다. 시골의 어르신들은 젊은 청년을 보면 마치 손주를 마주하듯 반겨준다. 하나를 물어봐도 허투루 알려주는 게 없다. 그저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으로도 그들에겐 충분한 수강료를 지불한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 보니 요리를 전공으로 한 나에게 있어 시골은 더없이 좋은 배움의 환경이었다. 학교에서 기본기, 즉 뼈대를 형성했다면 고향 어르신들로부터 살과 근육을 덧붙인 셈이다. 도시에 나가 화려한 기술과 스펙을 쌓는 것과 달리 남다른 장점을 갖출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이라 본다.

여기에 요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식재료다. 국내 식재료는 모두 시골에서 재배돼 도심지로 유통된다. 한식을 하는 나라도 도시의 외곽 요리사보다 신선하고 맛과 품질이 좋은 식자재를 신선도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다. 셰프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내는 우리 식당을 찾는 단골도 많이 늘었다. 만약, 남들과 똑같이 졸업한 뒤 도시에 나가

일을 배우고 시작했다면 버텨낼 수 있었을까? 수많은 경쟁 속에서 빛을 내지도 못한 채 살아남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의 단점보다 장점을 살렸다. 어르신들이 어릴 적 드셨던 음식과 주전부리를 연구해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 사람들의 발길을 이 어지고 있다. 시골 어르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우리 식당에서 소비해 어르신들의 농가 소득을 올려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내가 그분들께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성장했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

청년들의 꿈과 목표는 비슷하다. 성공하고 싶다는 것. 나만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것. 성공을 향한 마음은 같지만 그 시작점이 다르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환경이 다르다고 단점만 있지는 않다. 다른 한쪽의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은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다. 단점 역시 장점이 될 수 있다.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다고 틀린 길은 아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관점만 다르게 본다면 분명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스쿨 미투'의 뿌리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스쿨 미투'로 이어지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학교에 예외 없이 경찰과 함께 특별조사단이 투입되고 있고 그 결과는 가혹하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는 교실 속 아이들은 불안감이 떨고 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혹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일벌백계를 얘기하지만, 폭력적인 전수조사 방식이 옳고 을 학교 공동체 파괴는 상상하기도 두렵다. 자꾸만 뒷걸음질 친다. 교육 공동체의 집단지성 발휘, 예방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학교의 자정 능력이 회복될 수 있게 교육과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내성화된 학교 문화의 혁신이 늦추어지지 않다. 무엇이 문제일까? 스쿨 미투는 왜 발생하고 있고, 그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미래의 민주시민이 성장하는 학교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영이가 짓무르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어쩔 것인가? 그것이 인생인 것을, 행여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의를 목격하거나, 성비위를 접하고 불만과 고통을 토로하더라도, 그것이 죽을 정도의 일이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잘 참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명한 부모가 아니겠는가? 어설피게 아이들의 불만에 동조하여 고발 운운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일생일대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의 평정심을 흔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 지 말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태도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인 처신인가? 그렇다. 대한민국 대부분 학교는 이렇게 대학입시 앞에서 인권을 저당 잡힌 채 오직 입시 체제를 향해서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차별과 비인간화, 비교육적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학교의 미덕인 것이다.

그 무관심의 뒤편에서 독버섯처럼 스쿨 미투가 자라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립학교처럼 폐쇄적인 학교 문화에서 교육분투하고 있는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고 무관심했다, 그래서 오직 대학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인 대한민국의 학교 구조에서 스쿨 미투가 기생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인지도 모른다. 교사의 교권은 물론 아이들의 인권이 만성적인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

부모들이 쉬쉬할 때 성 감수성이 민감한 학생들은 목소릴 터트렸다. 시대가 변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아이들의 평정심을 흔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일부

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옳다. 비록 철이 없었지만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과 문제 의식은 소중한 것이다.

이제 아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다. 높은 감수성과 시민 의식, 인간에 대한 이해, 돈으로 살 수 없는 휴머니티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어려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그래서 다가오는 사회 문제에 맞서서 공동체의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스쿨 미투는 입시 교육 체제라는 무한경쟁의 괴물에 기생하고 있다. 그 체제 속에 있는 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이다. 광주교육청이 학교에 인권의 나무를 심고 키운 지 9년의 세월이 흘렀다.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해야 공부도 잘한다는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이다.

社 說

열병합발전소 갈등 전남도가 조정 나서야

전남도가 나주 SRF(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 조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반쪽을 사고 있다. 도내 여러 사·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연계돼 있는 사안이어서 광역 행정을 변경해 광주를 포괄시키자 나주시 등이 반발하면서 10개월째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생활 폐기물을 가공한 고형 연료로 전기와 열을 만들어 혁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시설로 27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애초 나주·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등 6개 지역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다는 계획을 변경해 광주를 포함시키자 나주시 등이 반발하면서 10개월째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나주 범시민대책위는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발전소 가동 반대 집회를 1년여 동안 계속하고 있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

구하기도 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지난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3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해지자 나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 참여 방식의 토론과 속의 과정을 통한 해결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이에 당사자이니 전남도는 한 달 넘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전남도내 6개 사·군의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만큼 전남도가 맡는 게 합리적이다. 여러 사·군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광역 행정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이다. 자칫 갈등이 장기화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과정에서 나주 혁신도시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만큼 전남도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홍보 강화를

지구 온난화로 기상 이변이 빈발하면서 자연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올해도 8월까지 6만6503ha가 발생해 전년 대비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뜻하지 않은 자연 재해로 말미암은 농작물 등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안전장치다.

2001년 사·배 시범 사업으로 출발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농가 경영 안정장치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19만6000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이중 2만8000여 농가가 287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무소속 손급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률은 평균 29.4%에 불과했다. 이중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전국 대상 면적 106만 8540ha 가운데 32만1331ha(19만5804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평균 가입률 30.1%에 그쳤다.

특히 광주 지역은 대상 면적 8082ha 가운데 단 274ha(537농가)만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3.4%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전남 지역은 전체 대상 면적 20만 3194ha에서 9만2918ha(4만8087농가)가 가입해 45.7%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10농가 중 5농가 이상이 가입하지 않은 실정이다.

재해가 닥친 뒤 발만 동동 구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가 스스로 재해보험을 이용해 위험 요소를 줄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건강보험처럼 필수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최근 서울 명동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카메라에 담고 싶어 하는 건 카카오 톡의 인기 캐릭터인 곰 '라이언'이었다. 2층 건물 천정에 달을 듯한 대형 인형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는 그들에게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유쾌해지는 다양한 캐릭터는 오랫동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올해 90살이 된 미키마우스는 캐릭터 업계의 대표 주자다.

1974년 탄생한 고양이 헬로키티는 세계 120여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일본 대표 캐릭터다. 호빵

우리 동네 캐릭터

마곰', 고양이 '고양고양고양', 화성시 '꾸러기 캐라투스 코리요' 등 8개 캐릭터도 수상의 기

쁨을 누렸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나름 특징이 있고 귀여운 캐릭터들이다. 입상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광주 서구에도 캐릭터가 있다. 빨간 볼에 색동저고리를 입은 '해운이'다. 탄생 과정이 궁금해 찾아봤더니 서구의 상징 색인 해오라기의 '해'와 따뜻함을 뜻하는 한자 '운(溫)'을 합성해 만든 이름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고. 앞으로 이벤트 현장에서 해운이를 만나면 어떤 지 반가울 것 같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선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220-0536	220-0551
220-0664	220-0693	220-0536	220-0195
220-0642	220-0697	220-0536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